



인터넷 쇼핑몰, 집에서 '톡톡', 싼 가격 '흐뭇'



▲ 꽃배달 전문 쇼핑몰인 '러브플라워'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시대가 활짝 열리며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집안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선물용 상품을 구입하는 네티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종합쇼핑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갖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소개한다.

◆ 인터넷 뮤직랜드(cd.shopping.co.kr)=2만여종의 음반을 취급하는 매머드급 음반 백화점. 가수, 음반제목, 곡명, 작곡가, 지휘자, 오케스트라 등 종류별로 원하는 음반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음반사와 직거래를 통해 일반매장보다 20~30% 정도 싸게 판매.

◆ 러브플라워(www.flower.co.kr)=꽃배달 전문업체인 러브플라워가 운영. 탄생생일, 결혼, 회갑 등 뜻깊은 날과 동창회, 향우회 등 소규모 모임

일을 컴퓨터로 예약·관리한다. 가격은 꽃다발의 크기에 따라 4~6만원. 인사말이나 메시지도 덧붙일 수 있고 해외로도 배달 주문이 가능.

◆ 아이사랑(www.isarang.com)=신생아부터 만 7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위한 상품을 갖춘 사이트. 각종 유아용품부터 완구류, 학습교재까지 다양하다.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코너도 마련돼 있다. 마땅한 선물을 찾지 못한 고객들은 아이의 나이와 원하는 가격, 원하는 품목을 정하면 적당한 선물을 골라주는 코너도 있다. 회원은 10% 추가할인.

◆ 북마당(www.bookmadang.com)=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외국잡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시사지, 경제지, 컴퓨터전문지 등 2백여개 해외잡지의 주요 목록을 제공, 분야별 잡지목록과 지난 호를 찾아볼 수 있다. 서점보다 10~20% 할인된 가격.

◆ 코스메틱랜드(www.cosmetic.co.kr)=국내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코스메틱랜드는 할인율이 없는 대신 15%의 적립금제도와 가입 및 상품 구매시 제공되는 푸짐한 경품이 이색적이다. 태평양, LG생활건강, 한불, 나드리화장품 등 국내 12개 업체의 56개 브랜드를 구비했다.

◆ 카데코(www.cardeco.com)=자동차용품을 시중보다 10~50% 할인

한 가격에 판매한다. 1만원 이하의 저가 제품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검색엔진을 이용, 12개분야 4백여가지 상품을 분야별로 쉽게 찾을 수 있다.

◆ 토이샵(www.toishop.co.kr)=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와 교재 전문쇼핑몰. 연령, 기능, 가격, 브랜드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달의 추천상품'과 '이달의 신상품' 코너도 마련했다.

◆ 인집(www.inzip.co.kr)=웹진과 쇼핑몰로 이루어진 속옷에 관한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는 사이트. 국내에 속옷박물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속옷박물관도 만들었다. 쇼핑몰은 브랜드별 매장, 상품별 매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시중가격보다 25% 할인되는 가격으로 속옷을 쇼핑할 수 있다.

'우리동네 전화번호부' 엘로우페이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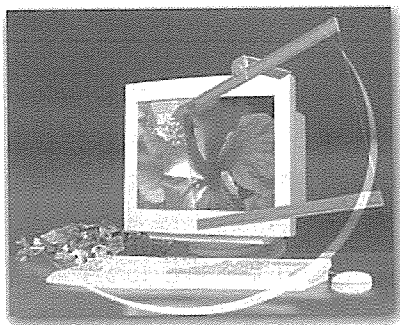


▲ 나래이동통신은 7월 '동네 전화번호부'로 불리는 신개념의 엘로우페이지 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동네 전화번호부’로 불리는 신개념 옐로우페이지(전화번호부)가 국내에 등장한다. ‘015’ 뼈빠사업자인 나레이 동통신은 7월부터 서울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구(區)내 모든 업종별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옐로우페이지를 발행, 전화가입자에게 무료 배달해줄 방침이다. 옐로우페이지란 식당, 가구점, 각종 제품판매점 등 해당지역의 업종별 전화번호는 물론 관공서, 쇼핑점 등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전화번호를 담고있는 지역전화번호 책자로 선진국에선 쉽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는 ‘○○동 상가안내 전화번호부’와 같은 형태의 책자가 구(區)단위로 확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옐로우페이지는 또 가볼만한 곳이나 버스노선 안내, 대중교통수단, 할인매장, 전시장 등도 소개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국 휴양림내 통나무집 전화번호, 골프장 전화번호 등과 같은 독특한 생활정보도 안내한다. 인명 전화번호는 일체 소개하지 않는다. 나레이통은 서울 8개 권역에 대해 관공서 번호, 업종별 번호와 같은 기본 전화번호는 공통으로 소개하고, 해당지역의 생활안내 전화번호는 해당지역 책자에만 별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종로구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울 전역의 기본 전화번호 외에 종로구의 세탁소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소개한 내용을 별도로 담은 책자를 배달한다. 한국전화번호부(주)에서 발행하는 인명과 업종별, 시·군별 전화번호부에 이어 구(區)단위 옐로우페이지가 등장함에 따라 전화번호부 책자는 ‘전국과 동네’ 양분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나레이통 관계자는 “평

소 생활하며 급하게 알고 싶었던 전화번호를 모두 담은 생각”이라며 “전화번호 책자는 이제 집에 처박아두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지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나레이통은 서울 8개 권역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놓았으며 5월 말까지 광고주 유치를 완료, 7월부터 2000년까지 총 2백48만부를 택배로 가가호호 무료 배달해줄 계획이다. 배포시기는 7월 강동·송파구지역에 우선 배포하고 마포·서대문·은평구는 9월,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는 11월, 강서·구로·금천·양천구는 12월, 강남·서초구는 2000년 2월, 용산·종로·중구는 2000년 4월, 강북·노원·도봉·성북구는 2000년 5월, 관악·동작·영등포구는 2000년 6월 등이다. 나레이통은 이어 2000년 이후에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도 발행 보급할 계획이다.

PC 보안경 가벼워진다



▲ AS광학의 저가형 광학플라스틱 PC 보안경.

PC 보안경 무게가 크게 가벼워지고 품질도 고급화된다. AS광학·미도광학 등 PC 보안경 제조업체는 유리재질의 저가형 제품이 대부분인 국내 PC 보

안경 번들수요를 겨냥해 2만원대 이하 광학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 최근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조립PC를 구입할 때 공짜로 끼워주는 번들용 PC 보안경으로 가벼운 광학 플라스틱 제품이 6천~7천원대의 무거운 판유리 재질 보안경을 급속히 대체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S광학은 보안경 한쪽 면만 멀티코팅 처리하고 프레임 재질을 단순화하는 등 생산원가를 크게 낮춘 저가형 광학 플라스틱 PC 보안경을 2월에 출시한다. AS광학은 저가형 광학 플라스틱 PC 보안경을 PC 조립업체에 번들용으로 제공하고 기존 PC 보안경 소매 시장에는 4만~6만원대의 고급제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미도광학도 2월부터 1만5천원대의 저가형 광학 플라스틱 보안경을 개발해 PC 조립업체에 번들용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그린피어시스템도 2만원대 저가형 제품을 개발해 실지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고가의 광학 플라스틱 보안경 생산만 주력해온 이들 업체가 뒤늦게 번들용 저가제품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IMF 이후 고급형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PC 보안경 유통업자는 “아직도 상당수의 유리 재질 보안경 품질이 ‘색유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광학 플라스틱 보안경이 출하될 경우 번들용 보안경 시장에도 고급화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속 3차원 사진기’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

물체나 사람을 짧은 시간에 촬영해

바로 입체영상을 인쇄하거나 컴퓨터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고속 3차원 사진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정밀측정연구실 김승우교수팀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입체영상을 만들어내는 '고속 3차원 사진기'를 최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 이 사진기에 적용한 고속 3차원 형상측정기술은 영화 '터미네이터 II'에서 미래에서 온 로봇이 수은처럼 액체가 됐다가 다시 솟아오르며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영화의 특수효과나 애니메이션 입체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기존 외국 제품들은 대부분 피사체에 레이저 등을 쬐서 반사되는 것을 분석해 입체영상을 얻는 '광삼각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팀은 '위상천이영사식 모아레 방식'(Phase-Shifting Project Moir)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 모아레 방식은 물결무늬(모아레)처럼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가 있는 격자에 물체를 비추면 물체의 굴곡에 따라 줄무늬가 곡선처럼 보이는 등의 간섭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개념 PC가 떠오른다

노트북PC와 데스크톱PC의 영역을 무너뜨린 제품, 크기를 30% 가량 줄인 데스크톱PC, 원격관리 및 요금부과가 가능한 무인컴퓨터, 부팅을 이원화해 사용자 환경에 맞는 부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 등 새로운 개념의 PC가 줄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주요 PC제조업체들이



▲ 액정모니터를 장착, 데스크톱과 노트북PC의 중간제품으로 평가받는 에어텍시스템의 '플래탑'.

국내 PC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시장개척과 수요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존 PC가 갖고 있는 특징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통신이 최근 출시한 '디노'는 노트북PC와 데스크톱PC의 중간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개 모델(모델명 CDN510, CDN500)이 출시된 디노는 데스크톱PC 본체에 13.3인치(CDN510)와 12.1인치(CDN500) TFT LCD 모니터를 탑재해 부피가 기존 데스크톱PC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피가 크게 줄었지만 인텔 펜티엄 II 2백33MHz CPU, 32MB의 주 메모리, 3GB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 등 최신 사양을 갖추고 있다. 에이텍시스템이 지난 12월 출시한 '플래탑'도 디노와 같은 TFT LCD PC의 하나. 플래탑은 15.1인치 TFT

LCD 모니터를 비롯해 인텔 MMX 2백33MHz 중앙처리장치(CPU), 32MB 기본메모리, 3.2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 16비트 사운드카드 등을 장착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매직스테이션 5300시리즈는 이중부팅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된 제품. 이 매직스테이션 5300시리즈는 일반 PC환경과 컴퓨터 교육환경이라는 두가지 부팅버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부팅을 할 수 있다. 컴퓨터교육환경으로 부팅할 경우 첫 화면이 윈도우98 또는 윈도우95 등의 초기화면이 뜨지 않고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담은 학습시스템 화면이 뜬다. 학습시스템 화면은 '윈도 학습메뉴', 과목별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메뉴', 컴퓨터학습 및 백과사전기능이 있는 '오프라인 학습메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일반 전원 부팅버튼을 누를 경우 일반 PC와 같은 초기화면이 등장한다.

멀티캡이 출시한 '뮤맥스'는 그래픽카드와 사운드카드 등 기존 입출력(I/O)카드를 온보드함으로써 기존 데스크톱PC보다 크기를 3분의 1 가량 줄이고 신세대 감각형 디자인을 채택한 타워형 제품이다. 자판기형태로 이용하는 인터넷검색용 무인컴퓨터도 기존의 PC개념을 크게 탈피한 제품. 넷크럽이 개발해 출시한 무인컴퓨터는 인텔 MMX 2백MHz CPU에 32MB 주메모리, 2.8GB HDD를 탑재하고 각종 워드 및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을 내장해 일반PC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본사와 전용선으로 연결해 원격 무인관리 및 동전방식의 요금부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㉞